

장흥 '숲속의 전남' 나무심기 행사 개최

해송 507그루·해당화·수선화 2천800본 식재 차별화된 경관숲 조성...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장흥군은 최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안양면 한승원산책길 인근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중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해송 507그루와 해당화, 수선화 등 초화류 2천800본을 식재했다.

군은 이번 나무심기를 통해 특광만 해변과 한승원 문화산책로 주변에 차별화된 경관숲을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미세먼지 ZERO 화분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체험행사는 2년생 황칠나무 묘목 350그루를 준비된 화분에 식재해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소득숲 조성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 이용한 음식 시식 체험도 열렸다.

장흥군은 표고버섯을 이용한 당숙육 시식행사를 열어 지역 임산물 우수성 홍보하는 데 노력했다.

장흥군은 올해 지역특화림 조성, 에코향기숲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10월 중에는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해 목재산업과 휴양산업의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장흥군이 최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개최됐다.

/장흥군 제공

장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주택형 태양광 발전설비시설 등

장성군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주택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3kW 기준으로 최대 3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는 20㎡ 기준 950만원, 지열 설비는 17.5kW 기준 1천여만원, 연료전지는 1kW 기준 1천970여만원이 각각 지원되나, 설비 내용과 면적 등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장성군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 49개 주택을 지원했다. 올해도 약 43가구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s://greenhome.kemco.or.kr>)에 안내돼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을 받으려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기업을 선택해 계약한 뒤, 오는 29일까지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장성군 교통정책과(061-390-7376)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장성=정운섭 기자 jis@

화순,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화순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화순군은 기관유형별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군 단위 중 1위에 선정돼 기관 표창으로 국무총리, 개인 표창으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표창 시상뿐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도 확보했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종합평가 우수기관 31개 기관, 유공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 이외에 '2019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및 기본지침' 설명,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나주, 유기농 실천·논 타작물 재배 다짐 결의

쌀 전업농·친환경 농업단지 등 농업인 200여명 참석



나주시 최근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19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다짐 대회'를 갖고, 농업인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최근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19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다짐대회'를 갖고, 농업인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쌀 전업농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원 등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진

환경 농업발전 유공 시상,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다짐 결의, 유기농 중심 친환경 농정 방향 설명,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영 나주시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은 유기농 실천 다짐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유기농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으며, 이창호 쌀 전

업농 나주시연합회장도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엔 '함께하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유기농 실천하고 논 타작물 재배 참여하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수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상호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위광환 나주시장은 "오늘 다짐대회를 통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쌀 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강 강사로 초청된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내 다양한 유기농 지원 정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홍 과장은 "쌀 중심의 친환경 농업에서 과수, 채소 등 품목의 다양화, 물량보다는 품질 위주의 농정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담양, 지역발전 도운 공로자 찾는다 '군민의 상' '명예 군민증' 수여 계획

담양군은 5월 3일 제40회 담양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발전의 숨은 공로자들에게 '담양군민의 상'과 '담양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기한은 내달 4일까지로 '군민의 상' 수여 후보자는 담양 출신 또는 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천분야는 지역개발·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진흥·산업경제 등 5개 분야다.

또한, '명예 군민증'은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지역 출신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담양군 자치행정과(061-380-316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주인공들을 찾아 지역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lbest1@

영광, 인구 늘리기 현장방문 홍보활동

영광군이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지원정책을 홍보해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현장·소통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광교육지원청과 영광우체국을 방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결혼·출산, 청년,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분야 등 영광군의 전반적인 인구 지원정책을 홍보했다. 또한, 한빛원자력본부 방문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영광군의 인구현황을 설명하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들, 특히 신규직원들이 내 직장 주소 갖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기업체 임직원 전입혜택을 안내하고 결혼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중점 홍보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사람이 우선입니다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